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8

“영국의 저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온 그를 보고 모든 식구들이 놀랐으나 매튜 헨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로,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천국만은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의 지갑이 아닌 제 지갑을 도둑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안 할 것이 없고 감사 안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그냥 삶의 여건이 충족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 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미 우리들을 보시고,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사 크리스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만입이 있다고 해도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선택 받는 자는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요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성도들에게 왜 사느냐고 하면 거의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다 과실 즉 영혼구원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전도 안 하는 성도가 성도가 아니듯이 선교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요 15:16)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삶에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삶의 열매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이런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 들어 주시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응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천국을 주심을 감사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즉 천국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달프고 괴롭고 피곤해도 이를 능히 극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게 하셔서 성도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므로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러한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은즉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길을 지나는 동안 돈이 많으면 그것을 주를 위해 쓰고 못 살아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마 16:2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출 22:29)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지 않고 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헌금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예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헌금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추수감사헌금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기에 물질을 내어 놓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금도 훈련입니다.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하기 때문에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생활이 헝클어져 실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마 6: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과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세계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인본주의를 떠나서 신본주의로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신앙으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시 23:1)**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

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의 생활을 책임집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 6:31-32)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목자되신 예수님을 좇아 하나님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등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를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여러분이 성수 주일하고 수입의 십분의 일인 십일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혼탁한 세상에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고 참된 생활을 하며 목자되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신후 비로소 축복하십니다

나눔의 시간

1.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동안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점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에게 감사한 점들도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16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열매맺게 하시고 기도예 응답하심을 감사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나의 기도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로, 헌금으로,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부분에 있어 감사의 표현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다가올 2020 년에 하나님께 어떻게 더 큰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